



## ‘삼퇴’로 평안을 지키다



2004년 대기원시보에 《9평 공산당 (九评共产党)》이 발표됐고 이 책은 최초로 공산당의 본질을 체계적이고 명백히 논술했다. 《9평》이 40여 종 언어로 번역돼 세계 각지에서 발행됐는데 ‘공산당을 해체하고 있는 책’으로 각인되면서 세계적으로 그 기세를 막을 수 없는 ‘삼퇴’(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 큰 물결을 일으켰다. 2022년 4월까지 3억 9천만 명이 글로벌 중국공산당 탈당센터에 ‘삼퇴’를 성명했다.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서 탈퇴해 ‘영원히 당을 따라가겠다’는 독한 맹세를 지위 연루되는 것을 면했다. 신은 사람의 마음을 보며 진심으로 ‘삼퇴’해야 하며 실명, 가명, 애명으로도 가능하다. 인터넷 봉쇄 돌파 프로그램을 이용해 탈당 사이트에 접속하시길 바란다. [tuidang.epochtimes.com](http://tuidang.epochtimes.com)

더 다양한 내용은 봉쇄를 돌파해 파룬파와 밍후이왕을 방문해 알아보시길 바란다.  
[www.minghui.org](http://www.minghui.org)  
 봉쇄돌파 프로그램 다운로드 링크 : 컴퓨터 PC 버전 :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VPN: <https://j.mp/fgv88>  
 안내 : 중국산 브라우저로는 위 주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IE, Edge, Chrome 또는 파이어폭스 등의 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

# 명백 明白

밍후이간행물  
MINGH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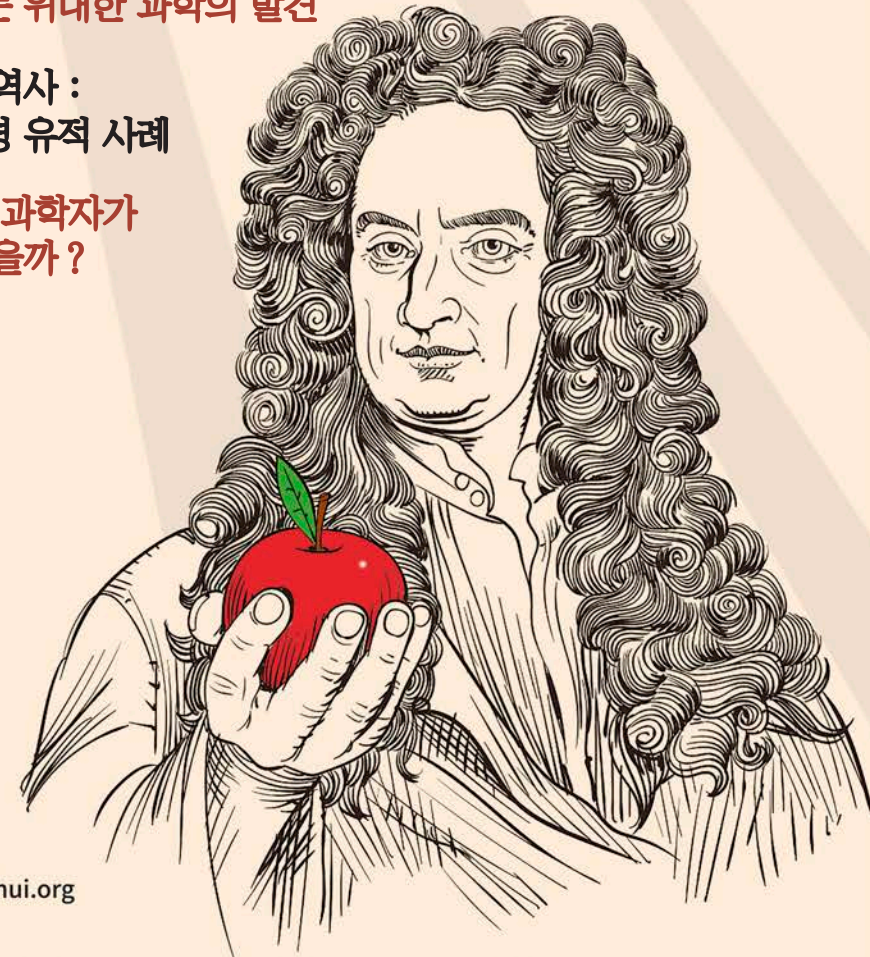
93

지난 2년반 신종 코로나  
조치에 대한 성찰

천지신명에게로  
인도하는 위대한 과학의 발견

무시된 역사 :  
사전문명 유적 사례

왜 많은 과학자가  
신을 믿을까?



[www.minghui.org](http://www.minghui.org)



# Contents

## 목차

2022년 5월 제 93호

편집자의 말

3 개정판 서문

혜안으로 관찰

4 지난 2년반 신종 코로나 조치에 대한 성찰

7 역병에서 살아난 진실한 이야기

시공찾집

8 천지신명에게로 인도하는 위대한 과학의 발견

9 인체와 우주 고에너지의 상호작용

11 왜 파룬파파가 의학의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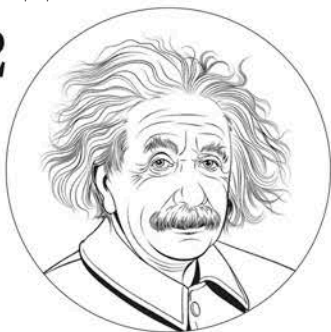
13 신종 코로나 중증환자가 되살아난 기적

사전문명에 대한 비밀탐구

14 무시된 역사 : 사전문명 유적 사례

17 인체는 소우주

p32



반본귀진

18 내 경험은 파룬파파가 진정한 과학임을 증명한다

21 다른 공간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

22 유리체 수술을 실패한 적 없는 의사

25 베이징 1만 명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조사 보고서

진상의 문으로 들어간다

26 '4.25'청원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

29 '4.25'는 도덕의 초석으로 역사에 기재

하늘과 사람의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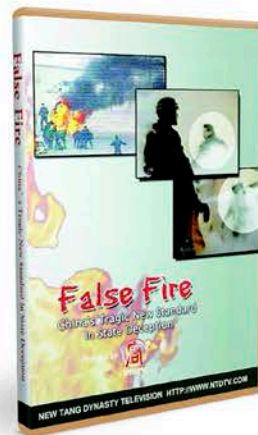
32 왜 많은 과학자가 신을 믿을까 ?

과학으로 까발린다

34 머리카락을 태우는 작은 실험

## 《위화(伪火)》

'분신자살' 거짓말을 폭로하다



국제교육발전기구 (IED) 는 2001 년 8 월 14 일 유엔 회의에서 '텐안먼 분신자살 사건'은 '중공 당국 '정부가 꾸며낸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 자리에 있던 중국 대표팀은 확실한 증거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2003 년 11 월 신당인 (新唐人) 에서 제작한 《위화 (伪火 : False Fire)》가 제 51 회 콜럼버스 국제 영화 TV 제에서 영예상을 수상했다. 이 영예상은 다큐 부문의 '오스카상'으로 불린다. 《위화》는 치밀하고 엄밀한 분석으로 '분신자살'의 의문점을 밝혀내 전반 사건은 중공이 파룬궁에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제작된 사기극이라는 것을 실증했다. 아래에 그중 2가지 의문점을 예로 들겠다.

1 '분신자살' 중의 한 명인 류춘링이 불에 타 죽었는가?



CCTV 녹화영상에서 1. 류춘링 (刘春玲) 의 몸에 붙은 불을 끌 때 누군가 무거운 물체를 머리에 공격했다. 2~3. 류춘링은 무의식적으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땅에 쓰러졌고 구부러진 물체 하나가 머리 부위에서 신속히 튕겨 나왔다. 4. 한 사람이 류 씨 뒤에서 타격 후의 자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2 평상복을 입고 화상 환자의 격리병실에 들어간다?



류쓰잉 (刘思影) 은 큰 화상을 입어 엄격한 소독을 하고 격리해야 한다. 감염을 막기 위해 의료인도 자주 드나들지 않아야 한다. 어찌하여 CCTV 기자가 격리복이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마이크를 들고 격리병실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 머리카락을 태우는 작은 실험

정리 / 리밍 (李明)

사람의 머리카락에서 약 88% 성분은 각질이다. 유황을 함유한 각질은 불이 붙으면 쉽게 연소한다. 실제로 머리카락이 불을 만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작은 실험을 해보자.

- ① 빠진 머리카락을 준비한다.
- ② 스톱워치를 준비한다.
- ③ 안전한 점화 도구를 준비한다.

젓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잡은 후 스톱워치를 누르는 동시에 머리카락에 점화하

면 거의 순간에 타오르며 스톱워치에 2.1초 시간이 나타난다. 탄 냄새가 공간에 가득찬다.

그러나 21년 전 텐안먼 광장에서 이상한 장면이 발생했다.

2001년 1월 23일 설날 전날, 텐안먼 광장에서 세계를 뒤흔든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중공은 5명 파룬궁수련자가 텐안먼 광장에서 '분신자살'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CCTV 녹화영상에서 '분신자살' 중인 왕진둥(王进东)은 전신이 시커멓게 타고 옷이 큰불에 '타'서 너털너털해졌으나 가장 쉽게 타는 머리카락은 머리에 마치 씌우개를 쓴 듯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요리할 때 뜨거운 기름이 팔에 튀어도 뜨거워 찔쩍 뛰게 된다. 그 '분신자살'이 만약 진짜라면 왕진둥은 자연적으로 반드시 강렬한 반응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중공 매체에서 보도된 '분신자살' 중인 왕진둥은 전신이 타올라도 태산같이 앉아있었다.



'분신자살'의 한명인 왕진둥



## 개정판 서문

이번 호부터 《명백》이 개정판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의 진실한 사례를 다양한 각도와 신선한 지식으로 풀어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속에서 인생의 참 뜻을 찾고 우주, 시공, 인체, 역사의 비밀을 풀어 반본귀진(返本归真)의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물리학, 생물학, 의학, 고고학, 사전(史前) 문화 등에서의 새로운 발견과 미지의 영역은 우리의 관심을 끌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탐구도 여기에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학자 베르나르는 《과학연구의 예술》에서 "배움의 최대장애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 미지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관념을 바꾸고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순수하고 새로운 인지의 큰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꿀벌의 눈으로 본 세계는 어떨까요? 꿀벌은 '복안(复眼)'으로 사람의 스펙트럼과 달라 노란빛보다 파장이 긴 빛은 볼 수 없지만 자외선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사람이 본 백마는 꿀벌 눈에는 남보랏빛으로 보입니다. 서로 다른 관찰방식으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을까요? 사실 모두 맞습니다. 과학자가 가시광

선 망원경과 적외선 망원경으로 외계를 관찰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중국 고대에 '호중천지(壶中天地: 주전자 속 신선세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대인의 관념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그마한 주전자 속에 술은 한 되 담을 수 있겠으나 어찌 그 속에 신선세계가 있겠습니까? 신선세계가 어디에 있는지 잠시 제쳐두더라도 현재 사람들도 다른 공간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우리 이 공간 외에도 아주 많은 기타 공간이 존재합니다. 아마 주전자 안에 다른 공간인 신선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자가 산봉우리에 오르면 신학자가 이미 그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바쁜 현대사회는 물질이 고도로 발달해 심령과 정신에게 남겨진 시간과 공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연이 있어 이 소책자를 받았다면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 이 정토(淨土)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생명의 비밀과 진정한 지식을 탐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明



# 지난 2 년반 신종 코로나 조치에 대한 성찰

정리 / 산허(山河)

신종 코로나(우한폐렴)가 폭발해 지금까지 새로운 각종 방역조치를 모색해왔지만 매우 빠르게 변이된 바이러스에 의해 뚫리고 말았다. 오미크론 변종이 이미 나타났는데 전염병은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가?

## 각종 조치로 전염병을 막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가 폭발한 후 빅데이터 통계로 반년마다 전 세계 확진자 숫자를 알 수 있다.

- 2020 년 상반기 : 1000 만 명 돌파
- 2020 년 하반기 : 7000 만 명 돌파
- 2021 년 상반기 : 9000 만 명 돌파
- 2021 년 하반기 : 1 억 명 돌파
- 2022 년 1~2 월 : 1 억 4854 만명 이상

이상의 숫자에서 세계에 전염병이 발생한 2년 남짓한 시간에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던지 전염병은 계속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만의 '페이스'로 가고 있었다. 특히 2022년 1월, 2월 신규확진자수가 전에 비해 배로 증가하면서 방역조치의 무력함이 더욱 드러났다.

## '의도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실험

2022년 2월 2일 과학전문잡지 《네이처》에는 2021년 2월 신종 코로나에 도전하는 '휴먼 챌린지' 실험 논문 한 편 게재됐다. 영국 정부의 승인 하에 영국의 백신 태스크포스팀과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로열 프리 런던 NHS 재단, 임상기업 에이치비보(hVIVO) 등이 공동으로 실험을 진행해 논문을 발표했다.

18~30세 중의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고 백신도 맞지 않은 건강한 지원자 36명에게 같은 양의 바이러스를 코에 뿌렸다. 실험 결과 18명의 피험자가 감염되고 나머지 18명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연구자들은 "왜 백신을 맞은 적도 없고, 감염된 적도 없는 사람이 바이러스에 저항력이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다.

한 신학자다. 그는 과학을 연구하면서 신학을 연구했는데 양자 간의 위배됨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50년간 《성경》을 몰두해 연구하면서 백만 자의 원고를 써냈고 임종할 때까지 근면하게 탐구했다. 그는 '성경의 비밀'이 자신이 밝힌 '만유인력'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여겼다!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인슈타인은 1929년에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습니다. 존재하는 사물이 조화와 질서로 자신의 신을 체현합니다." 그는 늘 "하느님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습니다"라며 우주의 일체는 모두 신에서 정확하게 잘 배치한 것이라고 믿었다.

## 아인슈타인의 커피잔

아인슈타인에 관련해 이런 소문들이 전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기자가 아인슈타인에게 종교와 신의 존재에 대한 견해를 발표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인슈타인은 방금 한 손님을 배웅하고 기자에게 질문했다. "기자 선생님, 누가 커피잔 등 물건을 이곳에 놓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자는 "당연히 선생님께서요"라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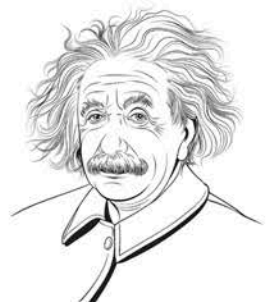
## 과학의 끝은 신학

어찌하여 조에 깊은 과학의 거두가 신을 믿을까? 왜냐하면 진정한 과학자의 우주관은 개방된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제한된 '기지(已知)'의 것으로 무한의 '미지(未知)'의 것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언제나 이 세상을 통해 '신의 걸작'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오늘날 인류가 보고 있는 3차원 세계는 우주 총물질량의 5%에 미치지 못하며 95%는 인류가 전혀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 부르고 있다. 사람의 두뇌에서 70%는 잠가졌고 신의 지혜는 완전히 개방됐다.

다시 말해 과학자가 높은 정상에 올라오면 신학자가 이미 일찍 그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과학의 끝은 신학이다.



明

## 왜 많은 과학자가 신을 믿을까?

정리 / 치밍

유엔(국제연합)은 최근 300년간 가장 저명한 과학자 300명을 조사했는데 신을 믿는 자의 비율이 90%를 차지했다. 그중에는 가장 정상급 과학의 거인도 포함됐다. 예를 들면 물리학 아버지 뉴턴, 상대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여성 과학자 퀴리 부인, 세균학 창시자 루이 파스퇴르, 발명왕 에디슨, 노벨상 발기인 노벨,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형제, 양자이론 창시자 막스 플랑크 등이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단지 20명뿐이었다.

### 뉴턴의 태양계모형

뉴턴은 태양계 모형을 만들었는데 크랭크를 당기면 별들이 즉시 자신의 궤도에 따라 조화롭게 회전해 매우 미묘했다. 어느 날 영국의 저명한 천문학자 에드먼드 핼리가 찾아와 오랫동안 모형을 갖고 놀다가 누가 만들었는지 물었다. 뉴턴은 고의로 누가 설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각종 재료가 우연의 일치로 형성됐다고 말했다. 핼리는 어쨌든 이것을 창조한 사람이 있을 것이며 천재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때 뉴턴이 말했다. “이 모형은 진정한 태양계에 비하면 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억만 배로 정교한 태양계는 전지전능하신 신께서 뛰어난 지혜로 창조해내신

것이 아닐까요?” 이 말에 핼리는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 신의 존재를 믿게 됐다.

뉴턴이 18세에 케임브리지대학에 입학해 공부할 때 이미 경건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는 늘 교과서와 노트에 기도문을 적었으며 심지어 과학에 대한 사색과 신에 대한 기도를 하나로 결부했다.

“그는 늘 신앙에 대해 사색하다가 과학과 연결시키거나 과학에 대해 사색하다가 신앙과 연결시켰다.” 그는 시종일관 신이 야말로 정교하기로 비할 바 없는 태양계를 창조한 진정한 주인이며 우주의 별들을 운행한 ‘첫 추동력’은 하느님이라고 확신했다.

뉴욕대학 역사학 교수 마누엘(Manuel)은 《뉴턴 전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근대 과학은 뉴턴의 하느님에 대한 묵상에서 시작됐다.” 사실상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이며 또



### 봉쇄, 백신에 대한 의론을 성찰해야

2022년 2월 3일, 미국 폭스 뉴스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봉쇄가 코로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 검토 및 메타 분석(A Literature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Lockdowns on COVID-19 Mortality)’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2020년 봄에 일어난 코로나 방역 봉쇄는 일부 지표상 미국과 유럽의 사망률을 고작 0.2% 낮춰서 거의 효과가 없음을 증명했다.

유럽 역학 저널(European Journal of Epidemiology)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도 전염병 확산과 백신 접종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는데, 사람들은 마땅히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적 의학저널 《란셋》에서 독일 군터 캠프(Gunter Kampf) 교수는 “갈수록 더욱 많은 증거에서 백신 접종자가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3월 3일 중국 광저우 중산대학

교 부속 제1병원은 의학 논문 사전 발표 플랫폼인 ‘메드아카이브’에 신종 코로나 4차 백신 접종 효과에 관련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 대상은 3차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나 4차 백신을 자발적으로 접종한 의료인 38명이었다. 연구결과 백신 접종 후 면역반응이 끊임없이 향상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백신 중복 접종이 지속적인 면역 반응을 증진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면역응답성이 수용체결합영역(RBD)이 아닌 곳으로 전이돼 면역 효과가 갈수록 약해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 백신이 중증률과 사망률을 낮췄다?

우리는 이런 설을 들어왔다. “코로나 백신이 변이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을 수는 없으나 중증률과 사망률을 낮췄으며 특히 노인에게서 그렇다.” 또한 일부 병원에 ‘사실적 데이터’가 있다고 했다. 이런 결론에 근거해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노인과 어린이에게 백신 접종을 추진했고 심지어 수개월 된 아기에게도 접종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노인이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백신 완전 접종자의 14배이며, 부스터샷 접종자의 41배라고 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도 비슷한 데이터를 내놨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이터에 따르면 중증률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백신접종자에 비해 낮았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





현재 노인 백신 지원자에 대해 엄격히 사전에 실험군을 나누어 이중 눈가림실험 (실험대상자와 관찰자 모두 실험대상자에게 가해진 처리를 모르도록 하는 실험)을 한 적이 없다. 아직 체계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한 적이 없는 것이다. 현재 노인이 백신을 맞으면 중증률이 낮춰진다는 것은 단지 감염으로 입원한 노인군을 대상으로 한 통계일 뿐이다.

그러나 한 노인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했다면 아마 백신을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각종 질병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규 실험에는 마땅히 데이터를 대조해야 한다. 실험군 (예를 들면 백신접종자), 대조군 혹은 음성반응군 (예를 들면 백신접종하지 않은 자) 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실험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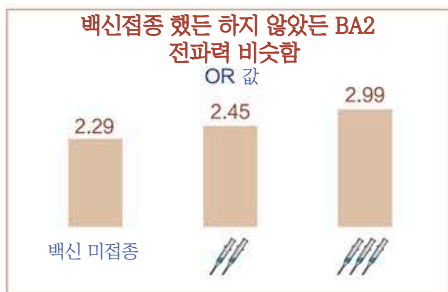
그렇다면 젊은이를 포함한 건강한 사람들의 '중증'에 대한 효과는 어떤가?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 저명 학술지인 유로서베이런스 (Eurosurveillance) 는 덴마크 감시관찰 데이터를 인용해 백신접종 0~3 회 대상자 모두 오미크론 (BA2) 중증을 초래해, 백신으로 인한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오히려 백신접종자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중증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고 했다.

'메드아카이브' 데이터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가정 내 바이러스 전파율을 살펴보면 백신 미접종자는 평균 2.29, 2차 백신 접종자는 평균 2.45, 3차 백신 접 종자는 평균 2.99 였다. 다시 말해 백신접종으로 전파율을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했다.

		중증	미중증	중증위험비율
	BA1	104	3228	1 (참조)
	BA2	27	579	1.37
	BA1	155	10402	1 (참조)
	BA2	28	1497	1.23
	BA1	86	2093	1 (참조)
	BA2	23	459	1.00

자료출처 : 학술지 《유로서베이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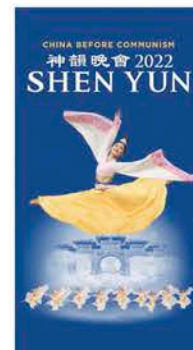


자료내원 : 의학 논문을 사전 발표하는 플랫폼 메드아카이브

## 대역병에서의 성찰

인류는 역사상 수차례 닥쳐온 역병을 어느 한 번도 깨끗이 물리친 적이 없다. 역사상 이미 발견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시카고대학 전 인류문명 사학자 윌리엄 H. 맥닐은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Plagues and Peoples)》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류의 출현 이전부터 있었던 각종 전염병은 앞으로도 인류와 함께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말하자면 인류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류가 있으면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바이러스 역사를 개변한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인류의 운명을 개변했다.



## 더할 수 없이 훌륭한 선원 공연 전통으로 돌아가는 길로 안내

선원 (神韻, ShenYun) 예술단은 세계 제일의 중국고전무용과 고전음악 예술단으로 고전예술 방식으로 사라져버린 중화오천년 전통문화를 진정으로 복원해 발전시켰다. 현재 선원예술단은 유럽과 북미에서 순회 공연 중이다. 상세한 정황은 인터넷 봉쇄돌과 프로그램을 이용해 방문하길 바란다. [www.shenyun.org](http://www.shenyun.org)



# 세계는 진선인이 필요하다



중국전통문화에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이라는 말이 있다. 역병의 출현은 도덕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한 것으로 인류가 공동으로 ‘업력(業力)’을 만든 것이다. 이 업력이 여러 차례 전염병을 초래했으나 매 차례 역병은 인류를 무차별적으로 습격한 게 아니다. 역병 속에서 업력을 제거하고 과오를 성찰해 근본 원인을 찾아야만 이 역병이라는 재난을 피할 수 있었다.

‘사고전서(四庫全書)’에 따르면, 명나라 중기 광동 고주부를 지낸 서 씨의 외할머니와 새어머니가 전염성 이질이 심하게 발작해 이미 숨이 넘어갈 정도였다.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웃 친척들은 뽀뽀이 흩어져 달아났다. 오직 서 씨만이 홀로 남아 그들을 세심히 돌봤고 외할머니와 새어머니는 위험한 상태를 벗어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서 씨도 줄곧 건강했는데 마치 역병이 그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았다.

청나라 ‘매우집(埋忧集)’에 기재된 왕옥석(王玉锡)이란 유생(儒生)은 진군산(陳君山)을 스승으로 모셨다. 진군산의 온 가족이 전염병을 앓다가 모두 죽었으나 누구도 무서워 접근하지 못했다. 하지만 왕옥석은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내가 어떻게 스승과 그들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집 안으로 들어가 시신을 모두 입관했다. 시신을 수습하다가 포대기에 쌓여 살아있는 갓난아이를 발견해 의사에게 보여 목숨을 살렸다. 그러나 왕옥석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무사했다.

“천도무진, 상여선인(天道無親, 常與善人: 천도는 사사로운 친함은 없지만 늘 선한 사람과 함께 한다)”이다. 이러한 사례는 고급중외에 무수히 기재돼 있다. 明

## 역병에서 살아난 진실한 이야기

정리/산허(山河)

오늘날 어디에 있든지 역병이 사나워도 진심으로 ‘진선인(真·善·忍)’을 존경해 절망 속에서 발생한 기적이 있다.

2020년 3월 뉴욕 보석상 가드는 신종 코로나 확진을 받았으며 병세가 쾌속으로 악화돼 절망에 빠졌다.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하는 한 친구가 그녀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 9자진언(九字真言)을 외우라고 알려줬다. 9자진언을 끊임없이 진심으로 염하면서 가드는 곤경에서 벗어났다.

法輪大法好



真善忍好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주루이강(朱瑞剛)씨 가족은 2021년 3월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증상이 갈수록 심해졌다. 이때 그는 중국에서 수련했던 파룬따파가 기억나 그날 밤부터 연공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증상이 점차 사라졌다. 아내와 아들도 그의 영향으로 ‘진선인’에 대한 존경으로 정상으로 회복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다. 여러분은 혹시 파룬궁 수련생의 전화나 소책자, 혹은 건네는 문안인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소중히 여기시길 바란다. 왜냐하면 이는 오래된 기다림이며 생명이란 오묘한 문을 열 수 있는 기이한 연분이기 때문이다. 明

1

2 3

1. 2021년 '5.13 세계 파룬따파의 날' 맨해튼에서 대형 퍼레이드를 개최하는 파룬궁 수련자들
2. 2021년 7월 17일 파룬궁수련자가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반(反) 박해 22주년 활동을 개최했다. 7명의 유럽의원, 국회와 주 의원이 서한을 보내 중국의 파룬궁 박해를 비난하고 파룬궁수련자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지불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확고한 지지를 표했다.
3. 2022년 4월 24일 대만 북부의 파룬궁수련자가 타이베이시 정부 광장에 집결해 단체로 대형 연공을 펼쳐 '4.25' 1만 명 평화청원 23주년을 기념했다.



# 천지신명에게로 인도하는 위대한 과학의 발견

글 / 위쓰 (宇思), 정리 / 전엔 (甄言)

과학이 신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마저 곤혹스러워한  
3대 과학적 발견을 살펴보자.

## 1 과학이 증명한 우주 형성의 발단, 동서양 창세 전설과 유사

20세기 이전까지 대부분 과학자는 우주는 줄곧 존재했지 시작이 없었다고 여겼다.

하지만 1992년 미국 항공우주국 우주배경탐사선(COBE)의 위성 실험에서 '우주는 믿을 수 없는 빛과 에너지의 섬광 속에 창세와 같은 시작이 있었음'을 증명해냈고 과학자들은 '빅뱅(대폭발)'이라며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

신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보았던 COBE 실험 담당자이자 노벨상 수상자 조지 스무트도 "빅뱅은 한 가지 사건으로서 기독교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창세기의) 관점과 유사점이 있으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7일 만에 천지만물을 창조했고 동양문화에서는 반고(盤古)가 천지를 열고 여와(女

媧)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다.

## 2 '빅뱅'으로 생명 생성될 수 없어, 정확한 설계 있어야 가능

생명이 존재하려면 자연의 힘이 적절해야 한다. 유명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은 "대폭발 1초 후의 팽창 속도가 원래 속도의 수조분의 1만 적어도 우주는 지금의 크기에 이르기 전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다. 팽창 속도가 조금만 차이 났어도 성계가 형성되지 않아 인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태양계와 행성의 조건도 적절해야 한다. 산소, 수소, 질소, 나트륨, 탄소, 칼슘, 인 등 다른 원소도 생명에 필수적이다. 지구, 태양, 달의 크기, 온도, 상대적 거리, 화학 성분도 적절해야 한다. 또 많은 다른 조건들도 세심한 조율이 있어야 한다. 인간이 무작위 폭발에



## '4.25'는 도덕의 초석으로 역사에 기재

1999년 4월 25일 아침 베이징, 허베이, 산둥 등 지역 파룬궁수련자들이 푸유가(府右街)에 위치한 국무원 신방관(信访办)을 찾아왔다. 그들은 중난하이 서문 맞은편과 시안먼대로(西安门大街) 인도에서 조용히 대기했다. 구호를 외치거나 현수막을 펼치지 않았으며 아무런 과격한 행위가 없었다.

당시의 총리가 파룬궁수련자 대표를 접견하고 텐진 경찰에 사람을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려 문제가 일단 해결됐다.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졌고 떠난 자리에는 종이 한 조각 없었으며 수련자들은 경찰이 던진 담배꽂조차 꺼내주었다. 이는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된 체현이었으나 권력자에게는 다른 의도로 해석됐다. '이렇게 엄밀한 조직이라니, 종이 한 조각마저 흘리지 않다니!'

사실 당시 중국에서 10명 중에 1명은 파룬궁수련자로 만약 정말로 엄밀한 조

직이었다면 중난하이로 청원 간 사람은 1만 명뿐이지 않았을 것이며 수십만 명 혹은 더욱 많았을 것이다.

국무원 신방관 위치는 중난하이 서문 맞은 편이므로 경찰은 파룬궁수련생을 중난하이 인근으로 인도했던 것이다. 1999년 7월 전면적인 박해가 개시된 후 중공은 파룬궁수련자가 "중난하이로 돌진했다", "중난하이를 포위공격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모두 박해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들이다.

진상이 날로 전파되면서 갈수록 많은 사람이 '4.25'는 중국 역사상 '도덕의 초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도덕이 떨어지고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환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은 날에 걸어 나왔고, 약속이나 한듯이 같은 곳에 찾아와 합법적인 수련환경을 얻기 위해, 진리를 위해 개인의 일체를 내려놓았다. 그시각 정말로 천지를 감동시켰고 아름다운 명성을 후세에 남겼다. 明





油画《1999年4月25日》作者 孔海燕

유화《1999년 4월 25일》작가 쿵하이옌

해 파룬궁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진행했다. 결과 ‘파룬궁은 나라와 국민에게 백가지 이로움이 있어도 하나의 해로운 점이 없다’는 결론을 얻어냈고 이를 정치국에 보고서로 제출했으나 오히려 장쩌민의 불만을 자아냈다. 파룬궁 창시자의 거대한 도덕 감화력은 장쩌민을 더욱 질투로 날뛰게 했다.

## 1999

베이징 TV 방송국 사건 이후 베이징에서 보도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 마주해 뤼간과 동서인 허쥔슈는 주의력을 텐진시로 돌렸다. 1999년 4월 11일 허쥔슈는 텐진교육대학의 ‘청소년 과학기술 박람회’ 잡지에 ‘나는 청소년이 기공을 연마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발표해 계속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자를 씌우는’ 전략을 사용했다.

텐진의 파룬궁수련자들은 잡지 편집부와의 반복적인 교섭을 통해 이와 같은 악영향을 제거해줄 것을 바랐다. 또한 4월

18일 상급 부서인 텐진교육대학에 찾아가 실제 상황을 반영했다.

평화적인 청원을 하는 민중과 마주해 뤼간은 텐진시公安국에 진압 경찰 300여명에게 출동 명령을 내려 상황을 반영하려 간 파룬궁수련자를 붙잡고 구타했으며 45명이 붙잡혔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자 텐진시 정부는公安부가 이 사건에 개입했으므로 베이징의 명령 없이는 사람을 풀어줄 수 없다고 알렸다. 텐진公安은 직접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당신들은 베이징으로 가세요, 베이징으로 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건의했다.

박해의 엄중성이 확대되면서 전국 파룬궁수련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각지에서 소식을 들은 수련자들은 어떻게 베이징에 청원가는지 수소문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텐진 경찰이 사람을 붙잡은 것이 ‘4.25’ 청원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중공 고위층의 개별적인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 대면적으로 파룬궁을 탄압했는데 1996년부터 시작됐다. 파룬궁수련자들의 ‘4.25’ 청원은 단지 더욱 확대되는 박해를 막기 위한 선의적인 노력일 뿐이었다. **明**

서 우연히 존재할 확률은 얼마일까? 한 천문학자가 계산해봤는데 확률이 조조조조조조조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배후에 대해 “이런 탁월한 지혜에 비하면 인간의 모든 체계적인 사고와 행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경탄했다.

## 3 DNA의 복잡성은 자연적 원인으로 생성될 수 있는 지력을 훨씬 초과

DNA는 유전 지령을 내려 생물의 발육과 생명기능의 작동을 이끌며 주 기능은 정보 저장이다.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는 0과 1에 기반한 2진수 시스템이고, DNA는 4가지 염기(A, T, G, C)가 있어 저장 밀도가 매우 높다. 무계가 각설한 한 조각도 안 되는 DNA는 세상의 모든 영화를 저장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DNA는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으나 우리가 개발한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선진적”이라고 말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 공동발견자 중 한 명인 진화론자 프랜시스 크릭은 DNA가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기원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어떤 의미에서 생명의 기원이 당시에는 기적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믿었다.

21세기 초 무신론 선두주자인 안토니 플루가 DNA를 연구할 때 DNA 배후에 있는 ‘부품’이 너무 복잡해 ‘설계자’ 없이 탄생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 그의 무신론도 그때부터 끝났다. **明**

## 인체와 우주 고에너지의

## 상호작용

대만대학 전기학과 리쓰천(李嗣涇) 교수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 ‘손가락으로 글자를 보는’ 초능력을 개발하는 훈련반을 꾸렸다. 1999년 8월 실험에서 리쓰천이 한 초능력자에게 ‘불(佛)’자를 손가락으로 보게 했다. 그 결과 그 초능력자가 본 것은 문자가 아닌 눈부신 빛이었다. 당시 참여했던 과학자 10여명은 그 현상을 직접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리쓰천 교수는 또 중국 지질대학 인체 과학연구소 연구원인 초능력자 쑤추린(孫儲琳)에게 ‘佛’자를 손가락으로 보게 했다. 그 결과 쑤추린이 본 것은 눈부신 황금빛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佛’의 주음부호(중국어 발음 표기법) 역시 밝게 빛났다. 이는 ‘佛’자의 발음이 우주의 고에너지와 공진(共振)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독경, 염주, 기도 등 수행자의 행위도 정확한 의념, 소리, 문자를 통해 우주 고에너지와 아마 공진했을 것이다. **明**





## 1997

이어서 1997년 1월과 7월에 누군가 공안부에 개입해 2번이나 전국적 범위에서 소위 '불법종교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파룬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범죄 증거를 모아 '사교'로 정하려 했다. 그런데 전국 공안국에서 충분한 조사를 거쳤지만 '아직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중공은 운동을 벌이는 '능수'다. 파룬궁에 대한 평판과 위덕이 날로 향상되고 중국인 평균 10명 중에 1명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국면과 마주해 장쩌민은 질투를 견딜 수 없어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었다. 뤼간(罗干)은 장쩌민 손을 빌어 파룬궁을 탄압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했다.

## 1998

1998년 7월 뤼간 등은 공안부를 통해 공정(公政) 【1998】 제 555호 《파룬궁에 대해 조사 전개하는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는 공공연히 (더는 암암리가 아닌) 파룬궁을 사교로 간주하고 각지 공안정보 부서에서 깊이 있는 조사를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잇달아 공안, 특수 공작원, 통일전선부 공작원이 파룬궁 연공장에 파견돼 공법을 배우고 수련생과 함께 《전법륜(转法轮)》을 배웠는데 사실은 모두 잠입한 첩자였다. 그러나 파룬궁에는 잠입할 여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파룬궁의 일체 활동은 공개적이었고 수련할지 안 할지는 모두 자유였으며 등록이 없고 회

비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첩자는 오히려 이런 인연으로 파룬궁을 깊이 알게 돼 진정한 파룬궁수련자가 됐다.

뤼간은 조사 결과에 놀랐다. 전국에서 한 개의 범죄 증거도 수집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뤼간의 부하는 흑백을 가리지 않고 상명하복했다. 라오닝성 차오양시 공안부는 차오공발(1998)37호 《파룬궁 불법활동을 금지함에 관한 통지》를 하달했고 현지 파룬궁수련자는 4000여 위안을 벌금으로 빼앗겼다. 이에 수련자 40여 명이 정상적인 수련환경을 수호하려고 공안부에 청원을 갔다.

1998년 5월 베이징 TV 《베이징특급(北京特快)》 프로그램에서 허쥔슈(何祚庥)가 파룬궁을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허쥔슈는 정법위원회 서기 뤼간의 동서이자 과학원 원사이자 학술상에서 아무런 공적이 없었다. 이 사람은 뻔뻔하게 양자역학과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을 결부시켜 사람들은 '과학 망나니'라고 불렀다.

영상이 방송된 후 '명예를 실추시키는' 활동이 만연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베이징과 허베이 수백 명 파룬궁수련자가 서신 혹은 직접 TV 방송국에 찾아가 진실한 수련 경험을 설명하고 TV 방송국에서 민중을 잘못 이끌지 말기를 바랐다. 베이징 방송국 지도자는 상황을 알고 나서 이는 방송국 설립 후 가장 심한 실수라며 프로그램을 통해 정정했다.

1998년 하반기 초오스(乔石)를 수반으로 일부 전국 인민대표 퇴직 노간부들이 공안이 불법적으로 파룬궁을 수련하는 민중을 다뤘다는 대량의 서신에 근거





2022년 4월 23일 2천여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뉴욕에서 '4.25' 평화 청원 23 주년을 기념하는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 '4.25' 청원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글 / 밍후이기자 정옌, 정리 / 산허

1999년 4월 25일 1만여 명 파룬궁수련자가 중난하이(中南海) 옆에 있는 국무원 신방관(信访办)에 청원을 갔는데 이를 '중난하이 사건'이라 한다. '4.25' 청원 23주년을 맞이해 중국과 전 세계에 깊은 영향을 줬던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되돌아보자.

### 1996

1996년부터 점차 1999년 '4.25' 사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 명백한 사람은 중공의 역사발전과 정은 사람을 괴롭히고 살해한 역사, 투쟁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1949년 중공 정권 수립 후 평균 10년마다 한 무리 사람들을 가려내 적으로 선포하고

그들에게 '명예상'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며 육체적으로 소멸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1996년 6월 17일 '광명일보'에 파룬궁을 비방하는 평론이 발표됐다. 중공 역사에 익숙한 사람은 척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바, 이는 또 한 차례 정치적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운동의 신호로 '명예를 더럽히는' 시작이었다!

## 왜 파룬따파가 의학의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가

정리 / 전옌(甄言)

**많은 사람이 파룬궁이 왜 그토록 신기한 치유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

서양현대의학은 인간의 건강이 여러 수준에서 다면적인 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및 마음의 상호 작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수련자는 우주의 최고 특성 '진선인(真·善·忍)'으로 일상 생활을 지도해 인생에서의 득실을 바르게 보기에 스트레스를 경감했으며, 좋지 않은 습관 등으로 유발된 수많은 질병의 고위험 요소를 차단했다. 질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이 층차에서 파룬궁 수련을 자기 관리 또는 자기 계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과학 연구결과는 파룬궁의 신기한 효과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파룬궁 수련은 세포와 분자 수준에서 쌍방향으로 면역체계를 조절한다**

혈액 중의 백혈구는 체내의 주요 방어 체계다. 백혈구의 70%는 호중구이며

혈액 내에서 수명이 7시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혈기관인 골수에서 빠르게 호중구를 생성해 보충해야 하며 50kg 체중의 사람은 하루에 반드시 500억 개의 호중구를 생성해야 한다.

2005년 미국 베일러의과대학 과학자들은 대체의학저널에 다음과 같은 논문을 발표했다. 건강한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파룬궁수련자의 호중구는 세균 탐식과 살상 기능이 뚜렷이 증가했고, 바이러스 방어와 관련된 조절 유전자가 뚜렷이 증가해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에 더욱 강한 저항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호중구의 방어 능력이 강화됐고 수명이 길었다. 따라서 파룬궁수련자에게 정상인의 20~30%의 호중구만 있으면 정상적인 면역능력에 도달해 호중구를 생성하는 골수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2) 파룬궁수련자 세포에서 쌍방향으로 면역 조절 기제가 나타났다. 면역체계는 양날의 칼과 같아 병균을 살상해 신체를 보호하나 너무 강해도 과도한 염증반응을 조성해 자신에게 손상을 줄 수 있다. 파룬궁수련자의 호중구는 염증 자극이 없을 때 생존 시간이 건강한 사람의 세포에 비해 길며 탐식기능도 강해 신체를 보호하는 데 유리했다. 염증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자살해 염증의 발생을 감소시켰다.





1998년 10월, 파룬궁수련자가 맨해튼 센트럴 파크 97번가에서 단체 연공할 때 찍힌 에너지장

## 파룬궁 수련으로 생물체계의 에너지장을 증진할 수 있어

에너지장 연구 분야에서 북미 과학자 그룹은 파룬따파 수련장이 심근세포의 수축력을 35~111%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파룬궁 수련의 에너지장이 심근세포의 수축력을 뚜렷이 증진하며 파룬궁 수련 과정에서 아직 규명하지 못한 에너지물질이 생물체계에 작용해 활성이 증진됐음을 의미한다.

이 실험 결과는 파룬궁이 직접 생물체계에 신기하고도 유익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에 믿을만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

2007년 8월 11~14일 제 65회 국제심

리학자협의회(ICP) 컨퍼런스가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됐다. 미국 과학자는 《파룬따파의 심신건강 효과에 대한 세포생리학, 심리학과 에너지의학 과학연구(Study at Cellular Level on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ing Effects of Falun Dafa Meditation)》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충분한 데이터와 실험 결과로 파룬궁이 사람의 심리적 압력을 경감하고 심신건강 수준을 향상하며, 현대인의 수많은 심신 질병을 치유하고 정신력과 도덕수준을 향상하며 잠재적인 지혜를 개발하는 등 방면에서 뚜렷한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또한 현대과학 여러 학과의 입장에서 엄밀하고 통속적인 분석 논증을 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심리학 연례 회의에서 강렬한 반응을 일으켰다.

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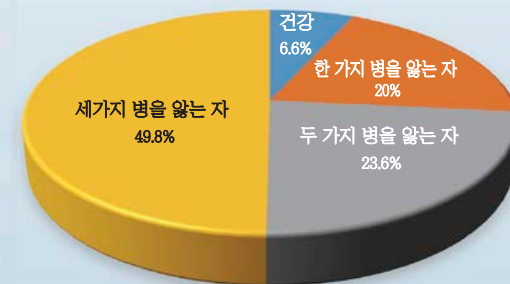
## 베이징 만명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조사 보고서

파룬따파는 파룬궁이라고도 하며 1992년 리홍쯔(李洪志) 선생님께서 전하신 불가상승(佛家上乘) 수련대법이며 '진선인(真·善·忍)'을 수련의 지도로 한다. 질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데 뚜렷한 효능으로 가가호호에 널리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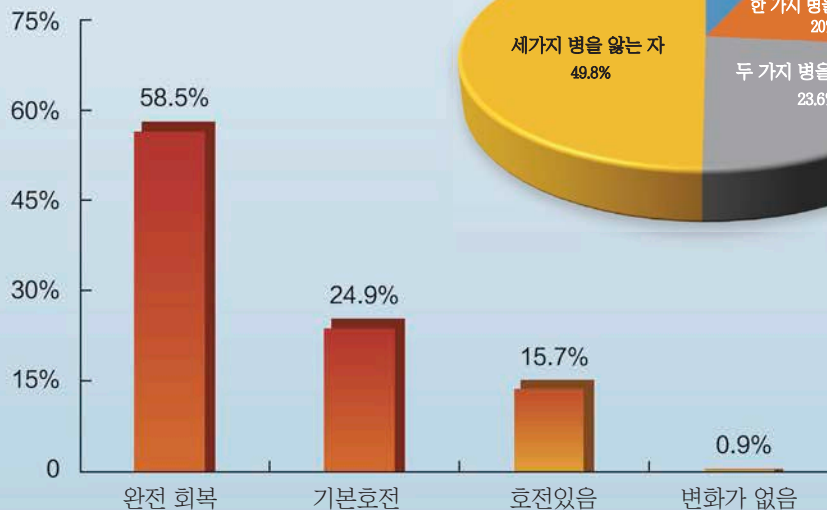
1998년 10월 중국세허의과대학교, 베이징의과대학, 무장총병원, 중국중의연구원 시위안병원, 해방군 304 병원 등 소속의 11명 의학전문가가 베이징 5개 지역의 1만 2731명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의학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파룬궁 수련을 통해 수련자들의 건강이 여러 정도로 개선됐는데 완전 회복은 58.5%, 기본적으로 호전은 24.9%, 호전이 있는 자는 15.7%로 나타나 총 유효율이 99.1%로 밝혀졌다. 조사군이 1년간 절약한 의료비는 4170만 위안으로 1인당 평균 3275 위안이었다. 국가를 위해 대량의 의료비와 치료 자원을 절약한 것으로 사회와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켰고 효과가 뚜렷했다. 이는 파룬궁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 좋은 공법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 파룬궁 수련 전 건강상황 분포도



### 파룬궁 수련 후 건강상황 개선





그녀를 찾으면 됩니다. 그녀는 수술도 잘 하고 환자에 대한 태도도 좋으며 수술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환자들도 모두 만족하니 우리도 많은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녀와 같은 이런 사람을 찾기 힘들습니다”라고 말했다.

하루는 내가 막 수술하고 있는데 하급병원에서 내막염 환자를 보내와 도움을 청했다. 환자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됐다. 그날 수술이 많아 아침 8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수술이 잡혀있었다. 수술을 끝마친 나는 그 내막염 환자를 검진했는데 감염이 심해 즉시 수술이 필요했다. 조수가 말했다. “젊은 사람들도 선생님 체력과 비교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경력의 교수라면 누가 밤에 환자에게 수술해줄까요? 모두 다음 날에 합니다.”

그렇다. 내가 파룬파파를 수련하지 않았다면 심신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으며 다음 수술을 계속할 체력이 어디 있었는가? 또한 환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엄청난 무리를 감당할 수 있었는가? 대법에는 나에게 선타후아(先他后我), 무사무아(无私无我)의 경지에 이르기를 요구했다.

자정이 지나서 나는 다시 수술대에 올라 내막염 환자에게 수술을 진행했다. 환자의 눈이 감염된 상태를 보니 다음날 수술했더라면 안구를 보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수술 후 환자는 안구를 보존했고 시력도 0.3으로 유지됐다.

수술 다음 날 회진을 할 때 그의 아들이 나에게 “아버지의 수술을 해주시는 의사이십니까?”라고 물었고 나는 “네”라고 답

했다. 그는 내게 정중히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퇴원할 때 환자의 가족이 찾아와 “주임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온몸이 진동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선생님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 진상을 분명히 알게 된 그는 기꺼이 가입했던 소년대 조직에서 탈퇴했다. 그는 연거푸 “파룬궁은 좋아요, 선생님 말씀을 믿습니다. 파룬궁은 정말로 대단합니다!”라고 말했다.

### '홍바오(红包)'를 거절하다

몇 년 전 지방 시급 선전부서 영도가 당뇨병을 앓아 망막 병변이 심했다. 수술 전에 그가 홍바오를 줬지만 사양했다. 그들은 깜짝 놀라며 “아니, 홍바오를 안 받는 사람도 있나요?”라고 말했다. 그렇다. 나와 같은 수준의 의사가 수술도 이렇게 많다면 일년내내 받은 홍바오만 해도 최소 50만 위안(한화 약 9400만 원)은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저는 파룬파파를 수련합니다.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며 일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라고 하셨기에 저는 종래로 홍바오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알려드렸다. 그는 “전에 파룬궁에 대한 인식에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선생님과 며칠 동안 만나면서 환자 개개인에게 그렇게 성심성의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파룬파파가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

明

## 신종 코로나에 걸린 중증환자가 되살아난 기적

정리 / 전엔

66세의 환둥(阮东)은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베트남계 중의사다. 2020년 8월 3일 환둥은 기침하고 열이 나기 시작했고 밤새도록 기침으로 잠들 수 없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응급실로 이송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았다. 혈당이 400, 혈압은 120/160이었다. 의사는 그에게 정맥주사 항생제와 3~4가지 약을 처방했다. 환둥은 계속 기침하고 자주 혼미상태에 빠졌다. 5일부터 호흡이 더욱 힘들어져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가장 높은 출력으로 인공호흡기를 작동시켜도 숨이 막혔고 병세가 계속 악화됐다. 극도로 허약했던 그는 계속 입원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위급한 상황에서 전에 동료 의사 환차오(阮乔)가 위험에 봉착하면 ‘파룬파파하오(法轮大法好 - 파룬파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 9자 진언(真言)을 염하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알려준 말이 떠올라 환차오에게 전화했다. 환차오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반복해서 진심으로 9자 진언 ‘파룬파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외우라”고 당부했다.

그는 진심으로 9자 진언을 반복해 염했다. 갑자기 더는 약을 먹고 싶지 않았고 집에 돌아가 가부좌를 하고 싶었다. 3개월 전 환둥은 온라인 영상을 따라 파룬궁 공법을 배운 적이 있었다. 그는 돌아가 자기 격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8월 8일 퇴원했지만 다음 날까지 계속 인공호흡기를 착용했다. 오전 11시 약 복용을 중단하고 죽을 먹은 다음 침대에서 파룬궁 제5장 공법(가부좌)을 연마했다. 30분도 안 돼 많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0일 인공호흡기를 떼어내고 일어서서 파룬궁 동공도 연마할 수 있었다. 얼마 안 돼 기침이 멈췄고 폐의 산소포화상태도 85%까지 증가했으며 혈압과 혈당수치도 안정됐다. 사흘 후 병원 검사에서 완치진단을 받았다.

진심으로 9자진언(九字真言)을 염하고 온라인 비디오 영상으로 파룬궁을 배운 기억에 근거해 그는 살아날 수 있었다. 환둥은 마음속으로 파룬궁 창시자 리홍쑤(李洪志)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고 파룬파파에도 감사를 표했다.

2020년 6월 스위스 전 노바르티스사 전염병학 의학박사 동위홍 등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6개 나라, 6개 인종 36명의 사례를 연구했다. ‘파룬파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염한 후 11명 중증환자 중에서 10명이 완치됐고 1명이 호전됐다.

9자 진언을 성심으로 염하면 ‘진선인(真·善·忍)’의 바른 에너지로 세포가 우주바른 에너지와 공진을 일으키면서 바이러스 공격에서 벗어나 면역력이 증진되면서 자연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明





阿尔卑斯山岩石壁画 알프스 석판 벽화

## 무시된 역사 : 사전 문명 유적 사례

글 / 쿵칭상 (孔庆翔), 정리 / 전연

다윈의 진화론이 유행되며 학계의 사전(史前) 문명과 관련된 고고학 성과는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꼬리표가 붙었다. 사실 사전문명과 관련된 고증은 원래부터 신비롭지 않았으며 주류문화가 의도적으로 무시해 금지구역이 된 것일 뿐이다.

### 인간의 발자국이 찍힌 놀라운 삼엽충 화석

1968년 미국인 윌리엄 J. 마이스터가 발자국이 찍힌 삼엽충 화석을 발견했다. 이 신발 발자국은 길이 26cm, 너비 9cm로 성년 남자의 신발 사이즈다. 1968년 6월 13일 '데저레트 뉴스' 신문 지면에 '수수께끼의 화석 발굴 (Puzzling Fossils Unearthed)'이라는 제목의 글에 화석 사진이 첨부돼 보도됐고 잇따라 미국 각 지역 신문에서 전재했다.

삼엽충은 5억 6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에 출현한 상고시기 동물로 지금부터 2억 4천만 년 전 폐름기에 완전히 멸종됐다. 인류와 삼엽충이 동시대에 함께 생활했다는 이 화석의 발견은 진화론 이론과 심하게 충돌했다. 진화론을 수호하는 지질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발견을 없애려는 시도도 있었다. 마이스터의 서술에 따르면 화석을 발견했을 당시 한 지질학자가 25만 달러의 가격으로 이 화석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평온한 마음으로 "잠시 쉬고 오세요. 수술대에 있는 간호사와 수술을 진행할게요"라고 말했다.

조수가 몇 분간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후 거울을 안정적으로 잘 잡아줘 빨리 수술을 마쳤다. 결국 환자의 시력이 1.0으로 회복됐다. 만약 파룬따파를 수련하지 않은 예전 성격이었다면 진작 조수에게 한바탕 욕했을 것이며 수술도 당연히 잘하지 못했을 것이다.

파룬따파에서 수련해 낸 자비심(慈悲心)으로 찾아오는 환자에게 선의로 대하고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가족처럼 대했다. 수술을 진행할 때마다 환자에 대한 책임감으로 성심성의를 다했다.

내가 주치의였을 때 과의 안구 후면 레이저 실 일을 겪었다. 그때 많은 환자에서 피드백을 받기도 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병원에서 눈을 진찰했습니다. 그 의사가 제 안구 후면을 보더니 '레이저를 너무 잘 쏘았어요!'라며 누가 쏘냐고 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 유리체 수술의 기적을 만나다

최근 10년간 나는 주로 유리체 수술에 종사하며 안구 후면 질환을 치료했다. 이런 수술은 난도가 높고 위험이 크며 학습 주기가 길다.

내가 이 수술을 처음 진행했을 때 환자의 유리체에 피가 고여 있었다. 수술에 앞서 환자의 병세를 진지하게 진단했다. 파룬따파 수

련자로서 반드시 환자를 책임지고 수술을 잘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자신감이 없으면 이 수술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를 '실험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수술대에 선 나는 평온한 마음으로 정력을 집중해 모든 단계를 잘 해냈다. 속도가 아닌 안정만을 추구하며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수술 다음 날 환자의 시력이 0.8로 나타났다.

파룬따파가 나의 심신 수양을 변화시키고 지해도 열어주어 뛰어난 수술 기술을 얻을 수 있었다.

어느 한번 학술교류에 국내 전문가들이 모였다. 나는 몇 개 수술 사례를 전문가들과 교류하면서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전문가들은 "이 의사는 유리체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진정한 유리체 수술 의사입니다! 수술 중에 나타난 복잡한 상황에 대해 냉정한 판단으로 인내심을 갖고 처리함이 매우 전문적입니다. 잘 된 수술 효과가 모든 것을 말해 주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 남을 위해 생각하다

때로는 하급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가 합병증으로 찾아올 때도 있었는데 병세가 위급한 환자를 만나면 낮이든 심야든 서둘러 응급수술을 했다. 하급병원 주임들은 사석에서 "그녀는 우리를 위하는 동시에 환자도 생각하니 일이 생기면

**일부 전문가들은 "유리체 수술 의사로서 100개의 눈을 멀게 하지 않으면 진정한 유리체 수술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첫 번째 수술부터 지난 3년간 실패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는가?**





나는 올해 50 여 세이며 안과 주임 의사다. 1996 년에 파룬따파 (法輪大法) 를 수련하기 시작하면서 의술의 비약적인 향상으로 동종 업계의 찬탄을 받았고 많은 환자도 파룬따파 은혜로 광명을 되찾았다.

### 직책을 다하다

목소리가 큰 나는 예전에 남들에게 잘난 체하며 멸시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 대법 수련 후 환자와 말할 때 속도를 늦추고 목소리를 낮췄더니 친근감이 생겨 태도가 좋다는 평을 들었다.

주말에도 직접 회진하고 약을 갈아주는 데 환자를 당직 의사에게 맡겨 약을 갈지 않는다. 당직 의사가 환자 상황을 잘 모르니 병세가 바뀌면 환자가 제때 처리를 받

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서다.

### 타인을 선하게 대하다

2013 년 9 월에 당뇨병 망막 병변, 대량 증식 막, 망막박리를 수반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수술이다. 수술을 진행한 지 5 시간 넘었을 때 조수가 정말 견딜 수 없어 잡고 있던 수술 거울이 흔들려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 집도 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조수가 수술 거울을 흔드는 것인데 거울이 흔들리면 집도 의는 메스껍고 어지러움을 느끼며 화를 낸다. 심할 때는 어지러워서 수술대에서 기절하기도 한다.

파룬따파는 내게 매사에 우선 타인을 생각하라고 가르쳤기에 그 조수에게 화를 내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며

지질학자는 “나는 그것을 없애버릴 거다. 그것이 지질학자인 내 전반 인생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과학자는 공정한 연구를 진행했다. 다른 지질학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더욱 많은 발자국이 찍힌 화석을 발견했고 그중에 아이의 맨발이 찍힌 화석도 있었다.

과학자 코델 반후세 (Cordell VanHuse) 는 다이아몬드 전기톱으로 아이의 맨발이 찍힌 화석을 조각조각 절단한 후 단면에 대한 연구를 거쳐 발자국의 진실성에 대해 분석했다. 만약 이 화석이 인공으로 조각됐다면 그 내부구조에 발로 디뎠을 때 형성된 압력선이 존재할 수 없다. 단면 분석을 거쳐 내부 무늬와 발자국으로 움푹하게 들어간 형태가 일치했으며 특히 발가락과 발꿈치 부위의 압력선이 뚜렷하게 보였다. 이로써 아이의 발자국이 찍힌 화석이 진실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신발자국이 찍힌 삼엽충 화석  
(화살표시 된 곳이 삼엽충 화석)



아이의 맨발이 찍힌 화석

### ‘깊이 잠든 인류문명의 기억’ 해저 건축물

1968 년 프랑스 지구물리학자 ‘그자비에 르 피송’은 대륙판 이론을 제출했다. 지구의 대륙판 사이의 이동이 매우 느려 해마다 통상적으로 0~100mm 이동한다. 현재 대륙판은 오랜 역사와 시공을 거쳐 안정됐다고 할 수 있다.

바다 면적은 지구에서 71% 를 차지한다. 자금과 기술 등의 제한으로 인류는 현재 단지 5% 정도의 해저만 탐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각 대양에서 뜻밖에 완벽한 사전 (史前) 시기 건축물을 발견했는데 예를 들면 태평양의 해저 건축물이다.

1986 년 일부 잠수부 키하치로 신카쿠 (Kihachiro Shinkaku) 가 일본 요나구니 바다 밑에서





좌측 : 라스코 동굴에서 발견한 100 여 개의 생생한 동물 벽화 우측 : 라 마르케 동굴에 있는 벽화

우연히 인공적인 계단 구조를 발견했다. 1992년부터 류큐대학 해저 조사팀과 물리와 지구과학 연구원이 조사연구를 시작했다. 그들은 잠수, 3D 지형측량, 수중 탐색장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 결과 체육장, 조각상, 기념비, 도로, 배수구, 주민구역 등 건축물과 동물 조형 석판과 각종 노동도구를 발견했다. 전반 건축물은 동서로 약 270m, 남북으로 약 120m, 높이 약 26m였다.

세밀한 분석을 거쳐 연구원들은 이는 최종적으로 인공 건축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겼다. 해저 구조물에 부착한 생물화석과 표면 암석에 대한 측정을 거쳐 조사팀은 이 건축물은 지금부터 1만 년의 역사가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이 건축물을 지을 때 사용된 사암은 2천만 년 전에 형성됐음을 발견했다.

## 상고시기 인류의 정보가 담겨 있는 세계 각지의 벽화들

사람들은 일찍이 유럽에서 350 여 개의 상고시기 동굴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뛰어난 예술수준을 갖췄고 그중 절반 이상이 프랑스에 있다. 그리고 알프스 중남

부 협곡에는 수만 개의 회화가 존재한다.

프랑스 라 마르케 (La Marche) 동굴에서는 두루마기를 입고 신발을 신고 있는 155 개의 인물화를 발견했다. 사람들은 편안한 옷을 입고 모자를 썼으며 목에는 장신구를 착용했다. 그림에는 광물질 안료로 칠까지 했고 안료는 희귀 망간산화물 광물질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이런 광물이 없었고 사람들은 이 안료가 어떻게 제조되고 어디에서 운반해왔는지 아직 모른다.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을 거쳐 이 동굴 벽화가 그려진 연대가 최소한 4만 년 이전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세계 각지에는 원시벽화 유적이 존재한다. 남아프리카 국가 암석예술 자료에는 적어도 11만 4천 개의 사전 암석 벽화 유적지가 기록돼 있다.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남아프리카에는 5만 개를 초과하는 유적지와 200만 개 이상의 인물 회화가 있을 수 있다.

##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선진적인 상고시기 원자로

1972년 6월, 프랑스 핵연료 재처리 공장은 아프리카 가봉공화국의 오클로 인근

## 다른 공간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정리 / 치밍 (启明)



다른 공간을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다. 사람은 단지 가시광선을 감지할 수 있으며 가시광선은 전자파라는 '대가족'에서 극히 좁은 주파수대에 불과하며 많은 천체에서 나오는 빛은 가시광선이 아니다.

다른 공간을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양자물리학자는 우리 인류공간과 평행으로 존재하는 '평행세계'가 존재한다고 제기했다. 현실세계는 하나의 우주로 구성되지 않았으나 우리는 단지 한 층면에서 활동할 수 있을 뿐이다.

1970년대에 제기된 '초끈이론'은 수학을 이용해 우주는 마땅히 여러 차원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했다. 예를 들면 10차원이나 11차원의 공간, 혹은 26차원이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주는 무한한 차원의 공간이라고 했다.

최근 10여 년간 우주학에서도 다른 시공을 인식했다. 빅뱅 (대폭발) 이론에 따르면 극히 초기의 우주에는 조금의 공간 구역이 있었으며 공간구역마다 팽창지수에 따라 관측할 수 있는 크기의 우주를 초과하는 미세우주 기포를 형성했다. 미세우주 기포마다 하나의 대응하는 우주가 형성됐고, 우리가 생활하는 이 우주도 그중 하나의 미세우주 기포가 팽창해 형성

된 것이라고 한다.

사람이 감지하는 분자로 구성된 거시적 물체는 분자와 별 사이 공간에 위치한다. 현대 끈이론의 T- 쌍대성 이론은 만약 우주가 플랑크 길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간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크기,  $1.6 \times 10^{-35}$ 미터) 보다 작게 축소된다면 우주는 쌍대공간 (dual linear space) 으로 바뀌며 원래 우주의 축소에 따라 끊임없이 커질 것이며 보기에는 마치 거대우주와 같다. 따라서 전자에서 원자핵 사이는 분자에서 별 사이와 마찬가지로 역시 극히 드넓은 공간이다.

또 다른 시공의 사례에 대한 기재도 있다. 예를 들면 버뮤다 삼각지대는 비행기나 배가 실종되는 사고가 잦은 것으로 세상에 소문났다. 1970년 미국 비행기가 버뮤다 상공을 비행하다 갑자기 레이더 화면에서 10분간 소실돼 지면과 연계가 두절됐다. 그런데 비행기가 착륙하자 비행기의 시계와 모든 승객의 시계는 10분 정도 늦어졌다. 이런 현상은 다른 시공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해석하기 어렵지 않다. 다른 시공에 진입하면 시간장이 느리게 변해 우리 이 공간에서의 수십 년이 그 시간장에서는 단지 몇 초이기 때문이다.

明

비교적 순수하고 성실하다고 여겨 별다른 접대를 하지 않았어도 업무에서 잘 돌아왔다.

한 달 뒤 사장이 사무실에 들러 나에게 준 자금이 별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보고 책망했다. “어째서 돈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그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알아보고 사드려요. 한 달에 몇 번은 접대해야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거의 반년간 사장은 매번 나에게 교제에서 돈을 많이 써야 업무실적이 더욱 좋아진다고 했다. 동료와 친구들도 말했다. “왜 그렇게 어리석어요. 돈 쓸 줄을 모르다니. 누가 나에게 돈을 준다면 얼마라도 다 썼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돈을 아끼지 않기 시작했다. 이동할 때도 늘 택시를 탔고 매달 고객과 식사했으며 씹씹이가 호탕했다. 공금으로 가족 식사를 하고 청구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아예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돈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세상기풍이 날로 떨어지는 거센 흐름 속에서 이러한 행위가 탐오인 것을 몰랐다.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생겨 회사에서 정한 지표를 완성하면 액외의 이익금을 비상금으로 뒀다가 매달 말에 여럿이서 나눴다.

하지만 《전법륜》을 읽은 이튿날, 나는 출근해서 얼마 전 나눠 가진 5천 위안을 꺼내면서 말했다. “이 돈을 제가 가질 수 없어요. 우리의 정당한 수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줄로 알았다. 나는 정말이라며 《전법륜》 책이 얼마나 좋은지와 우리는 마땅히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알려줬다.

한 달 뒤 나는 사장에게 사직서를 냈

다. 왜냐하면 회사 업무량이 커지면서 자금 액수도 갈수록 커졌기 때문이다. 사장이 악덕 수단을 써서 의도적으로 납입금을 내지 않아 2천여 만 위안을 채납했다. 그런데 모든 거래명세서와 문서에 모두 내 서명이 있어 상대방 회사에서 미납금 재촉을 할 때 모두 날 찾아왔다. 당초에 사장의 사기행위에 대해 매우 싫어했으나 생각해보니 내 빛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나에게 흘대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전법륜》을 배운 후 이는 완전히 ‘진선인(真·善·忍)’을 위배한 행위임을 알 수 있었고 무의식중에 사장의 사기행각을 도운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회사를 그만뒀다.

일자리는 잃었으나 마음은 오히려 가볍고 자유로웠으며 세계관과 가치관이 모두 개변됐다. 나는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아름다움 속에 심취했다. **明**



세계 각지 과학자들이 현장에서 상고시기 원자료를 조사하는 모습

우라늄 광산에서 수입한 200kg 우라늄이 이미 제련되어 이용됐음을 발견했다. 누군가 핵폭탄을 제조했을 것이 우려돼 프랑스 원자력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펼쳤다. 나중에 세계 각지에서 온 연구원과 과학자가 상세한 조사연구를 거쳐 우라늄 광산 인근에서 6개의 20억 년 전의 대형 원자료를 발견했고 50만 년을 운전(运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상고시기 원자로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순서대로 조율해 핵분열 중성자에 반사시켜 사용했는데 그 기술의 선진성은 이미 현대 원자료를 훨씬 초월했다. 핵반응에 사용되는 물은 반드시 매우 순수해야 해서 백만분의 몇의 오염물질이라도 ‘독화’반응이 일어나 반응로 운전을 중지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 어느 곳에도 이렇게 천연적인 순수한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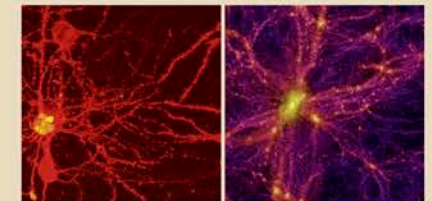
이 원자로는 50만 년을 운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순도의 물을 만들었는지가 또 하나의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 이 원자로 구조의 합리성에 대해 전문가들도 믿기 어려워한다. 이는 20억 년 전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생명이 존재했음을 설명한다. **明**

## 인체는 소우주

정리 / 전엔

2020년 9월 16일 학술지 《프런티어 오브 피직스(Frontiers of Physics)》에 ‘신경망과 우주망 사이의 양적 비교’라는 논문이 게재됐다. 이는 천문학과 신경학자가 사람 두뇌 신경망과 우주망을 공동으로 분석한 후의 연구 논문이다.

연구를 거쳐 사람 두뇌와 우주가 지극히 닮은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뇌의 물 성분과 우주에서의 암흑 에너지가 각각 전체 질량의 약 75%를 점하고 있었다. 스펙트럼 분석, 네트워크 구조의 파동분포, 네트워크 절점의 정보 용량 등 다방면의 비교를 통해 보니 사람의 두뇌와 우주는 거의 동일했다. 아래 사진에서 좌측은 두뇌 신경망 구조, 우측은 우주 별자리를 슈퍼컴퓨터에 입력시킨 우주 모형이다. **明**



좌측: 두뇌 신경망 구조.  
우측: 슈퍼컴퓨터로 본 우주 거대 구조 모형.



## 내 경험은 파룬따파가 진정한 과학임을 증명한다

### 대법으로 미혹을 타파

1996년 동료가 《전법륜(轉法輪)》 책을 갖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가져다봤는데 보기 시작하니 덮을 수 없었고 볼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책을 보니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미혹이 풀렸다. 다른 공간이 있는지, 하늘에 신이 있는지, 지하에 귀신이 있는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사람에게 내세와 환생이 있는지 등이다.

당시 나는 수학을 전공하며 이론상으로 다른 공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미국의 한 수학자는 이미 11개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론으로 증명할 수 있을 뿐 그것의 존재형식을 알 방법이 없었다.

한 친구가 다음 사례로 다른 공간이 존재할 가능성을 추리했다. 만약 사람의 눈이 1차원 공간만 볼 수 있다면 사람을 봤을 때 하나의 직선일 것이며, 만약 사람이 2차원 공간만 볼 수 있다면 사람이 평면으로 보이며 한 쪽의 그림일 것이다. 현재 사람의 눈으로 3차원 공간을 볼 수 있으므로 세상의 모든 물체가 입체적으로 보인



다. 만약 사람의 눈으로 3차원 이상의 공간을 볼 수 있다면 다른 공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눈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능력을 국한시켰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나는 우리가 생존하는 공간 외에 다른 공간이 존재하며 또 다른 공간에 생명이 존재하다는 것을 매우 믿고

있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무신론 주입을 받아 이런 호기심이 현실사회에서 물질에 대한 추구 때문에 매몰됐다.

《전법륜》을 읽어보니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서 가장 열은 언어로 가장 통속적이면서 알기 쉽게 다른 공간이 무엇인지와 그 진실한 존재에 대해 설명하셨다. 내가 아직 눈으로 직접 다른 공간과 그곳의 생명을 볼 수 없으나 대법 법리로 그들의 존재와 존재형식에 대해 완전히 명백해졌고 확신하게 됐다. 사부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방대한 우주의 오묘한 비밀도 알려주셨다.

그래서 세계의 수많은 학자, 박사, 2개 이상의 박사학위를 받은 뛰어난 사람들이 모두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고 있고 모두 파룬따파의 독실한 신자였

다. 원래 파룬따파야말로 진정한 과학이었다! ‘《전법륜》은 천서(天書) 구나! 이 책은 천서야! 나는 수련해야겠다!’ 나는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계속 찾고 있던 것임을 깨달았고 그 격동된 심정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다.

### 아랫배 부위의 파룬상전(法輪常轉)

전 직장의 한 동료는 단독전수하는 불가(佛家) 법문을 수련하고 있었고 천목이 늘 열려있어 다른 공간의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전에 그는 내 신체 많은 부위에 병이 있는 것을 보았다.

수련 수개월 뒤 전 직장에 일을 보러 갔었다. 그는 날 상하좌우 보더니 기색이 달라졌다. 나는 그에게 알려졌다. “파룬궁 수련은 아주 좋아요. 병이 다 없어졌어요.” 그가 말했다. “아랫배 부위에 파룬이 있어요. 노란색으로 왼쪽으로 9번, 오른쪽으로 9번 돌아요. 몸 우측에서 빛나는데 아주 밝아요.” 나는 마음에서 벽차오르는 격동을 내리놓았다. “그래요, 저에게 파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또 수개월이 지나서 두 번째로 그와 만났을 때 그는 경탄했다. 수련한 지 반년밖에 안됐으나 내 신체가 본질적으로 개편돼 그의 수십 년 수련을

초월했다고 했다. 그는 파룬궁이 사람의 신체를 개편하는 속도가 불가사의하다고 말했다.

### 병없는 신체의 즐거움이란

수련 전 계속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B형 간염이 가장 심했다. 20여 년간 서양 의학과 중의학 치료, 민간치료와 전문가의 진찰, 수입 약품을 먹어봤으나 치료할수록 심해졌다. 나중에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혈액의 양성 수치가 우리 검사기기보다 높아 측정할 수 없어요. 이전 활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간염이 폭발하면 생명을 잃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파룬궁 수련 며칠 만에 단숨에 계단을 오를 수 있었고 자전거를 타고 계단을 오를 수 있었는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주치의는 내 변화를 알고 불가사의하다고 말했다.

### 대법으로 도덕이 향상되다

나는 전에 외자기업의 ○○시 판사처 경리였다. 업무를 인계받을 때 사장은 고객접대로 사용할 큰 금액을 주면서 회사를 만들어 업무를 확대해 보라고 했다. 내가 담당한 거래처는 매우 큰 기업으로 그들은 내가

